

한민당에 뿌리를 둔 민주당은 어디로?

이 글은 정구종 직전 동우회장께서 나에게 ‘한민당에 뿌리를 둔 민주당은 어디로?’라는 제목을 정해 주고 동우지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해서 쓴 것이다. 정 회장이 이런 제목을 정해 준 것은 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민주당(한민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에서 크게 벗어나 변색 변질되고 있음을 개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아가 고하 인촌 선생 등이 창당하고 지켜온 한민당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영구히 발전하기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장성원
(전 논설위원·전 국회의원)

1945년 9월 16일 경운동 천도교 대강당에서 한민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교육과 언론 문화 종교를 통해서 항일운동을 한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창당대회장 주위에는 공산당의 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한민당 청년당원들이 포진,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다.

선언문이 낭독되고 강령과 정책이 발표됐다. “우리는 전 국민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전 국민의 단결된 총력을 기울여 새 국가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고 세계문화 건설에 매진하려고 한다”는 선언문이 낭독되자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강제1조는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이었고 정책 제1호는 ‘국민 기본생활의 확보’였다. 신생 국가의 국가 이념과 실천 목표를 밝힌 선언이고 정강 정책이었다.

지도부는 지역별로 안배한 집단지도 체제. 한 도에서 한 사람씩 총무 9인을 뽑고 당수인 수석총무를 추대해 지도부를 구성했다. 각도 총무로 경기 김도연, 충청 조병옥, 전북 백관수, 전남 송진우, 경북 서상일, 경남 허정, 황해 백남훈, 평안 김동원, 함경 원세훈이 선출되고 고하 송진우가 수석총무로 추대됐다. 가인 김병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 되었다.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등이 지도부 위 영수로 모셔졌고 사무국장 나용근, 당무부장 이인, 조직부장 김익수, 외부부장 장덕수, 선전부장 함상훈, 정보부장 박찬희 등으로 간부진이 구성됐다. 인촌은 창당 당시에는 정치는 참여하지 않고 정치는 고하, 인촌은 교육과 언론에 전념한다는 역할 분담에 따라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한민당이 이렇게 창당된 것은 한민당 창당 열흘 전 9월 6일 밤 창덕여고 강당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의 여운형과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이 중심이 돼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

기 때문이다. 9월 2일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한다”는 맥아더 사령관의 발표가 있자 좌익계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밤중에 날치기로 인민대표자 회의를 열고 인민공화국(인공) 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9월 14일 발표된 인공 내각 명단을 보면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 수상 허헌, 내무 김구, 외무 김규식, 재정 조만식, 사법 김병로, 문교 김성수, 체신 신익희 등이 었다.

인듯 보기에 좌우 지도자들을 총망라한 인선 같지만 실은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기 전에 좌우합작을 위장한 정권을 세워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내려는 술책이고 위계였다. 10

한편 북한에서는 11월 3일 조선민중의 존경과 신앙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조만식을 당수로 조선민주당(조민당)이 결성되었다. 남한에서는 한민당, 북한에서는 조민당이 창당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고당 조만식과 고하 송진우는 친숙한 사이였다. 고당이 8년 연상이지만 동경 메이지대학을 같은 시기에 다니면서 유학생친목회에서 자주 만나 교류했다. 3·1운동 때는 중앙중학교 교장으로 거사를 기획했던 고하가 오산중학교 교장이던 고당과 연락하면서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가지우 두 사람이 미래를 가약하면서 같은 당명으로 당을 만든 것은 언젠가는 통일될 나라의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자

해 분투하던 거인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고하의 적극적인 친(親)이승만 노선에 임정계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설이 나왔다.

이제 고하 대신에 정계 진출을 극구 고사했던 인촌이 주위의 강권으로 한민당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인촌은 1947년 7월 여운형, 같은 해 12월 장덕수가 잇달아 암살당하는 테러리즘의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도 충심으로 이승만을 도와 마침내 5·10 제헌국회 총선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첫 조각에서 한민당은 소외되었고 이승만의 독주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민당은 야당으로서 이승만의 1인 정치에 맞서기



한자리에 모인 한민당 인사들.

인촌 고하가 창당한 한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표방 현 민주당은 급격하게 사회민주주의로 변색변질

월 16일 뒤늦게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주석 취임을 거부했고 11월 23일 귀국한 김구 김규식 등 임시정부요인들이 인공 참여를 거부했음은 물론이다. 문교 김성수 등은 사전 협의 없이 자의로 명단에 올려놓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허구였다.

이렇듯 해방 직후 정국은 광복의 환희를 누리고 새 국가 건설에 힘을 겨를 없이 좌우가 정치의 주도권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권력 투쟁을 벌인 시기였다. 광화문 동아일보사 안에 당 사무처를 꾸린 한민당은 파죽지세로 기세를 올리던 좌익계열의 책동을 저지하는 한편 이승만과 임정 요인의 한국을 기다리면서 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한민당은 당론으로 이승만의 정치노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인공은 한민당을 최대의 적으로 반동정당이라고 그들의 언론기관을 총동원,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는 큰 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련이 설치한 북조선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거절한 고당은 소련의 신탁통치 지지 요청도 단호하게 거부했다. 반탁과 반공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소련군은 고당을 연금하고 조민당은 부당수 최용건 등 공산주의자들은 대거 집단 월남했다. 당 분부를 서울로 옮긴 조민당은 한민당과 함께 동아일보 사옥을 당사로 쓰기도 했다. 이 운영은 인촌의 추천으로 1948년 제헌국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승만이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으나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다.

격동의 1945년이 저물어가는 12월 30일 새벽, 비원 서쪽 원서동 고하 맥에서 총성이 잇달아 울렸다. 흉탄을 맞은 고하가 운명하고 말았다. 일제강점기에 언론을 통해 항일 민족정신을 지켰고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으로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우기 위

시작했다. 한국의 야당사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인촌은 강력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1949년 2월 10일 한민당을 확대 개편, 신실된 신익희 지정천의 대한국민당과 1대1로 합당해서 민주국민당(민국당)을 만들었다.

1955년 2월 18일 인촌 서거 후 그해 9월 18일 민국당과 호헌동지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호헌동지회는 자유당이 강행한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개헌 공포(4사5입 개헌)」에 반발한 의원들이 결성한 원내 교섭단체였다.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신익희, 1956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급서하고 1960년에는 조병옥 후보가 진중 별세한 이후 장면 김도연 윤보선 박순천 김영삼 김대중 등이 이승만 박정희 신군부로 이어지는 독재와 싸워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한민당이 뿌리내린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가 급격하게 사회민주주의로 변색 변질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였다.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고 연령이 50대로 진입한 586세대(현재는 686) 운동권 출신들이 문재인 정권 때 대거 중용되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민주주의로 급전(急轉)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 소위 주사파로 불린 NL(민족해방)계열과,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반(反)자본 민중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던 PD(민중민주주의)계열 운동권 출신들이 문 정권의 주도 세력을 이루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이 없는 데모 투사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 임금, 주 52시간, 분배 우선 포퓰리즘, 탈원전, 민주노총 유착, 친북 정책 등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갔다. 사회주의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온건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서유럽 사회주의 정당들과 달리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실행했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다수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내놓게 됐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보다 더 과격하게 사회주의 정책을 몰고 나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도 폭력적 언행을 서슴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들이 당론을 지배,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는 민주 정당이 파쇼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재적인 전체주의가 집권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이 실시된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지 않고 정쟁을 일삼는 저질 저급 정치권에 국민은 극도로 실망하고 혐오하고 있다. 진부한 보수와 급진적인 진보를 모두 심판해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참신하고 유능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정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